

11, 12월의 해충(XVI)

- 젓나무잎응애 -

변병호 /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나무에 응애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말로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던 때이다. 피해가 처음 발생한곳은 도심지 내의 가로수와 정원수이며 현재는 밤나무 조림지등 상습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임지에 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아메리카, 구주, 브라질
가해수종; 소나무, 곰솔, 젓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밤나무, 참나무류

가해상태; 피해를 받은 침엽수의 잎은 즙액을 빨아먹던 부위가 처음에는 황색이나 점자 색이 변하여 회백색의 반점으로되며 피해가 심할때는 나무 전체가 회갈색으로 변하고 낙엽이 된다. 또한 가해부위에는 알껍질과 약충의 탈피각이 거미줄에 매달려있다. 활엽수에서는 다른종의 응애와는 다르게 잎표면에



응애의 피해를 받은 가지



젓나무잎응애 알



젓나무잎응애 성충

기생하여 가해하므로 잎표면이 엷맥을 따라 누렇게 변한다.

형태; 암컷 성충의 몸길이는 0.3~0.4mm이고, 모양은 난형(卵形)이며 체색은 등색~적갈

색이고, 등쪽의 자모(刺毛)는 비교적 길다. 수컷의 체장은 0.2~0.3mm이고 형태와 체색은 암컷과 같다.

생활사; 1년에 5~6회 발생하며 알로서 월동한다. 월동한 알은 5월중순부터 부화하므로 제 1세대 약충은 5월 하순~6월 상순에 나타난다. 그후 10월 하순까지 불규칙한 발생을 반복한다. 최적 환경에서는 1세대 기간이 15~20일이며 알기간은 7~10일이고, 성충은 탈피후 2~3일부터 산란을 시작한다.

방제법; 응애류는 번식이 빠르므로 발견 즉시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5월하순부터 세심한 관찰을 하여 약충이 나타나면 즉시 살비제를 살포한다. 응애류는 타해충에 비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잘 생기므로 한약종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4